

# 내실 있는 개선으로 어제와 다른 목장이 되도록

## - 송정목장(2007 최우수상 수상), 합리적 변화가 생동감 넘치는 목장으로

취재 및 정리: 윤 양 한 (축산신문 부장)



송정목장에 들어서면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깨끗한목장가꾸기 수상기념 현판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입구에서 이용만·박삼남씨 부부의 모습

깨끗한 목장 수상 당시 한창 공사 중이던 착유실과 사료 자동급이시설 설치를 마친 송정목장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와 달라진 점은 목장 입구의 큰 입석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최우수상, 농협중앙회 깨끗한목장 최우수상 등 2개의 깨끗한목장 수상 현판이 송정목장의 방문자들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도 깨끗한 목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목장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용만 대표의 말이다.

### 송정목장의 목장 가꾸 기는 현재 진행형

송정목장이 이렇게 깨끗한 목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목장의 주변 환경을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자택 앞 조그만 마당은 푸른 잔디로 조성되어 있으며 몇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바로 옆 우사 앞 크고 작은 돌로 만들어진 화단에는 선인장, 철쭉, 꽃잔디, 은목서, 구절초가 잘 가꿔져 있다.

그래서 봄에는 철쭉 꽃, 여름에는 배롱나무 꽃, 가을에는 야생국화인 구절초 꽃이 피어 겨울철을 제외하고 목장 주변은 항상 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송정목장은 목장 앞과 뒤 4천500여평의 밭에 배롱나무와 은목서가 가득 심어져 나무가 매우 많은데 현재 고추를 심어 놓은 밭에도 앞으로 나무를 심어 목장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계획이다.

송정목장으로 가는 양쪽 도로에는 핑크빛의 꽃이 활짝 피어있는 배롱나무가 수십km에 걸쳐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런 배롱나무는 송정목장에서조차 자라고 있었다. 우사 바로 뒤에 있는 밭에 5천여그루의 배롱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2~3년 후에는 목장주변에 이 배롱나무를 옮겨 심을 예정이라고 이 대표가 설명했다.

사실 이 곳에는 깨끗한 목장을 가꾸기 위해 보성의 특산물인 녹차나무



목장앞 도랑에는 깨끗한 냇물이 흐르고 있어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목장 앞과 뒤 4천500여평의 밭에 배롱나무와 은목서가 가득 심어져 나무가 매우 많은데 현재 고추를 심어 놓은 밭에도 앞으로 나무를 심어 목장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계획이다. 깨끗한 목장 수상 당시 고추 등을 키웠던 밭에는 현재 배롱나무와 은목서가 가득 심어져 있다.

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녹차나무 대신 배롱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용만 대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녹차나무를 재배했으나 녹차에 축분을 다량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목장에서 생산한 퇴비를 다량으로 소모시킬 수 있는 배롱나무로 교체했다”고 설명한다.

배롱나무와 함께 목장 앞 1천500평의 밭에는 상록활엽수인 은목서도 3천여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이 나무들도 다 자라면 목장 주변에 옮겨 심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목장 옆에는 밤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30여종의 갖가지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목장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것은

목장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목장에서 나오는 퇴비를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다.

특히 송정목장은 드넓은 논과 밭이 있는 농경지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목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바로 인근의 논과 밭에 곧바로 환원시킬 수 있어 자연순환농업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목장 앞과 뒤의 밭에 심어놓은 5천그루의 배롱나무와 3천그루의 은목서가 2년 정도 지나면 꽃이 무성하게 피게 되는데 도시민들

이 목장을 찾아 젖소 사육하는 모습도 보고 목장주변에 만발한 꽃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축산이 지저분한 것이 아닌 아름답다는 목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며 “체험목장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목장 환경은 물론 내실이 더 중요

송정목장의 하루가 어김없이 4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은 2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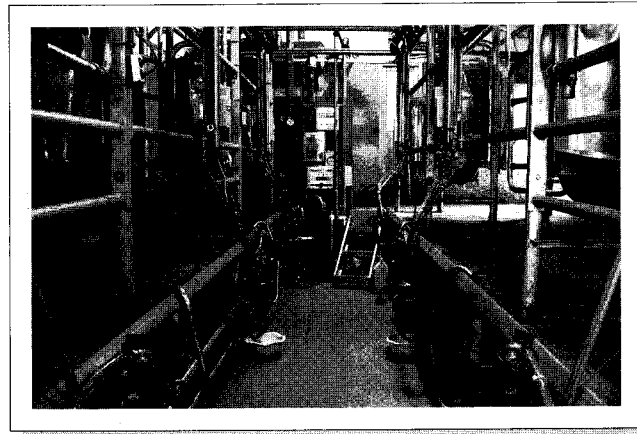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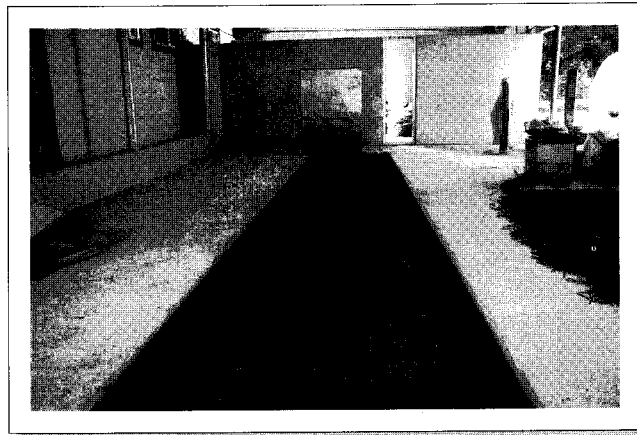
집유차가 일찍 오기 때문에 착유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하기도 하지만 우사의 사료급여, 정리 정돈, 논과 밭의 농작물을 관리를 위해서다.

깨끗한 목장 선정 당시 한창 공사 중이었던 텐덤식 착유시설 설치가 완료됐고 사료 자동급이 시설까지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목장 일이 보다 수월해 졌지만 그래도 사람 손길이 가야만 목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신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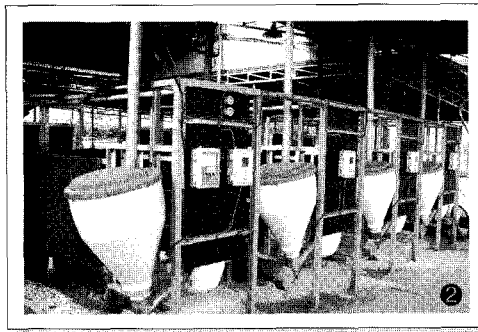
구식 파이프라인 착유실을 텐덤식으로 교체하고 나서는 유질도 향상되고 노동력 절감과 함께 편리하게 착유를 하고 있다.

사료 자동급이 시설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사료 자동화시설 시범농장으로 지정돼 설치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사료 자동급여기를 설치해 노동력을 크게 절감해줄 뿐만 아



깨끗한 목장 선정 당시 한창 공사 중이었던 착유실은 현재 텐덤식 착유기가 들어서 있다.



①② 최근 보성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사료자동급이 시스템을 설치해 목장일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③④ 송정목장의 꿈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 배롱나무. 송정목장 이용만·곽삼님 씨 부부의 셋째아들 이필재군

나라 개체별로 필요한 적정량의 사료를 급여하는 사양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료비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만족스러워 했다.

또한 송정목장은 깊은 산이 아닌 농경지에 위치해 항상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해 젖소를 사육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우사의 지붕은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으로 설계되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지붕을 활짝 열면 우사바닥에 햇빛이 들어와 일광소독은 물론 통풍도 잘 되어 우사 내부가 쾌적하다. 우사 바닥은 왕겨나 톱밥을 깔아주고 있는데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잘 건조되어 장기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㉞